

숙명적 비극의 시대,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고전 활용

-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사례로

김 주 환*

목 차	
I. 서 론	IV. 고전 교육의 목표는 힘의 강화이다
II. 숙명적 비극의 세계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청년들	V.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경우
III. 칸트 배후의 사드: 고전 교육 배후의 폭력	VI. 결 론

국문초록

이 글은 사회 물화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 과연 고전 교육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본다. 오늘날 청년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외적인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고 느끼는 무기력감 속에서 자유상실과 의미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고전 교육은 의도하지 않게 옳음을 실현할 힘과 조건을 가지지 않은 청년들에게 옳음을 실천하라는 강제된 요구의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고전은 소용이 되고 자신들의 삶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고답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고전 교육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왜 고통스러운지를 힘의 배치라는 관점에서 냉정히 살피고 그 힘의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실천의 기술이 되

* 동아대 교수, kdioni@hanmail.net

어 그들에게 유용성과 효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이 글은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고전 교육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지점들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

[주제어] 고전, 청년, 기술, 대학, 유용성, 베버

I. 서 론

이 글의 제목에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기술로서 고전 활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뜨거웠던 80년대나 90년대 초의 분위기가 떠올라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려나 하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또는 그 자체로 신성한 고전의 지혜를 고작 세속적인 실용적 기술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인문과학 고전이든, 사회과학 고전이든, 자연과학 고전이든, 고전 교육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는 힘과 힘이 충돌하는 역동적인 싸움터여야 하며, 고전은 그 전투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한, 나아가 이길 수 있기 위한 실용적 싸움의 기술서여야 하고 전술, 전략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 싸움터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외적인 힘과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힘이 충돌하는 삶의 세계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힘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우리의 자유 영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 외적인 힘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것이 크게 볼 때 외적인 자연세계,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영역으로서 사회세계, 그리고 내 안의 충동으로서 내적 자연세계를 들 수 있다. 인간의 문명적 삶이란 자연의 폭력, 사회의 폭력, 내적 충동의 맹목적 폭력과의 싸움 속에서 형태 지워진다. 지식(혜)이나 덕(아레테, 비르투)이란 이러한 싸움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무기와 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나 덕의 자리는 철학자의 관조적 사변이나 실험실 같은 현실

의 힘의 지형과의 연관에서 자유로운 평화로운 이상세계가 아니다. 지식과 덕의 자리는 삶의 고통이 우리를 때리고 삶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과 그것에 저항하는 비명들이 들려오는 삶의 전쟁터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상투적인 어법인 ‘항해사의 비유’는 변화무쌍한 파도와 바람,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의 폭력에 맞서 자신의 배를 적절히 조정하며 항해하기 위해 선장으로서 우리 각자가 능숙한 항해술을 익히고, 바다, 바람, 기상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며, 그 지식과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카이로스과 중용의 감각을 육체와 삶에 육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지식, 기술, 카이로스의 감각은 자유를 위한 싸움터로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덕목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자유를 향한 이 싸움에서 활용할 무기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지식, 그래서 자신의 존재론적 힘이 강화 또는 고양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지식을 고전문헌학자 니체는 ‘즐거운 학문(지식)’이라고 불렀다.¹⁾ 우리는 고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고자 하는데, 비판(critique)이란 위기(crisis)와 어원 및 의미가 같은 말이었다. 비판이란 본래 육체의 위기 즉 질병에 의해 육체적 힘이 약화되고 있음에 대한 명확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법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럼으로써 힘을 다시 강화시키는 의사의 치료 행위를 뜻했다.²⁾

그렇다면 최근 불고 있는 이른바 ‘인문학 열풍’, ‘고전 읽기 열풍’ 등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해 줄 수 있는 힘과 싸움의 기술을 제공해주는 ‘즐거운’ 현상일까? 국가가 추진하는 대학 정책으로서 각종 인문학 및 고전 교육 강화 사업들,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인문, 고전 리더십 또는 창의력 프로그램들, 대중매체들에서 콘텐츠 산업으로 팔고 있는 각종 힐링 내지 처세를 위한 악세사리 프로그램들 등은 고전 읽기의 불온성을 삭제한 채 순

1) 프리드리히 니체, 안성찬, 홍사현 역, 『즐거운 학문 메시아에서의 전원시 유고』, 책세상, 2005.
 2) Koselleck, Reinhart. *Critique and Crisis: Enlightenment and the Pathogenesis of Modern Society*, Cambridge, MIT Press, 1988.

응과 처세의 노예 도덕을 가르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전 교육의 본령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든, 기업이든, 대중매체든 이 조직들의 관심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있는 것은 아닐테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문학이나 고전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최근 확장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심층의 더욱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문학이든 고전 교육이든 이것들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잠재된 상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인데, 그 욕구란 효능감의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짐멜은 현대적 삶의 근본 문제들은 자신의 독립과 개성을 자기 외부의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지켜내려는 욕구에서 유래한다고 말한다.³⁾ 날로 나 바깥의 다양한 외적 강제력들에 의해 떠밀리는 삶의 양태들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우리가 세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세상에 의해 일방적으로 휘둘리며 결정되고 있는 듯 느껴지는 상황, 그렇기에 내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삶과 세계의 감각이 커져가고 있다. 이는 이 세상이 마치 주어진 유사 자연세계처럼 물화되어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니 자유상실과 의미상실의 현대적 삶에 맞서 빼앗겼던 자유와 의미 있는 삶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들이 축적되고 있다. 푸코 식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내가 결정하지 않은 외적인 힘의 압박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 삶이 결정되는 - 인용자) 이런 식으로는 통치되지 않겠다”라는 자유 추구로서 비판적 삶의 열망들이 커져가는 셈이다.⁴⁾ 고전 교육은 자기 삶의 자유로운 주인이 되어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기 위한 유용한 기술적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 글은 자유 추구하고 비판적 삶의 태도에 대한 열망들이 국가, 기업, 문화산업 등에 의해 탈취되고 있는 오늘날 고전 교육의 의미에

3)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역, 새물결, 2005.

4) 미셸 푸코,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정일준 역, 새물결, 1999, pp. 123-162.

대해 성찰해보려고 한다. 특히 이 글은 대학에서 고전 교육의 당사자들인 대학생들(청년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체험하는 삶과 세계의 감각에 대한 고려에 기반하여 고전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유명한 고전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하나의 사례로 하여 고전 교육이 어디에 주안점을 뒀야 할지 고민 해볼 것이다. 이 글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글이 수행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분석은 자유를 향한 싸움의 유용한 기술을 전달하고자 하는 고전 교육이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II. 숙명적 비극의 세계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청년들

1. 숙명적 비극처럼 체험되는 삶

나는 최근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삶과 의미 세계를 살펴봤다.⁵⁾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 12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이들과 여러 차례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청년으로서 자신들이 느끼는 불만과 분노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청년층에서 매우 뜨거운 주제인 세대 문제와 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뚜렷한 자기 입장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정서의 중요한

5) 김주환,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절대적 고통 감정과 희생자-신 되기의 탈정치」, 『사회와 이론』 36, 2020a, 49~92쪽; 김주환,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모험의 운명」, 『사회이론』 57, 2020b, 151~192쪽; 김주환, 「의미상실과 자유상실의 시대, 청년들의 시간감각과 세계감각 속에서 가치의 전도」 『문화와 사회』 28(3), 2020c, 315~363쪽.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중요한 특징을 ‘숙명적 비극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내-존재’로서 자신들의 삶의 양식(존재 양식)을 ‘비극처럼 조직되고 작동하는 숙명적 세계’를 살아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무기력한 존재’로 느끼며 살아간다.

그들이 체험하기에 이 세계는 자신들의 힘으로 조직하거나 바꾸거나 작동시킬 수 있는 집합적인 인위적 발명품이 아니다. 이 세계는 마치 자연법칙처럼 주어진 세계이다. 이 세계는 인간들의 인위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나 우리의 실천적 관여와는 절연된 채, 내가 어찌해볼 수 없는 압도적인 외적인 힘들에 의해 조직되고 작동하는 물화된 어떤 것이다. 가령 이 세계는 유사 자연법칙으로서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 부조리한 남성 패권의 압도적 폭력에 의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라는 운명 등등, 내가 결정하거나 개입하여 바꿀 수 없는 힘에 의해 조직되어 작동하는 세계이다.

코젤렉은 현대성의 중요한 시간 구조의 특징을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분리로 포착하면서 ‘현재’는 과거의 경험공간과 미래의 기대지평 사이에 벌어진 틈새의 순간이 된다고 말한다.⁶⁾ 이는 신학적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전근대 사회의 시간 구조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전근대 사회는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 분리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현재와 미래는 이미 과거의 경험공간의 연장일 뿐으로서, 현재와 미래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과거에 결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삶-시간의 감각에서 세계와 자기의 삶은 인간의 실천적 관여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오늘날 청년들이 느끼는 삶-시간의 감각이 이와 유사하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수저계급론이 이야기되고 이른바 ‘노오력’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이들의 삶의 정서를 대변한다. ‘해도 안된다.’ 그렇기에 청

6) 라인하르트 코젤렉, 『지나간 미래』, 한철 역, 문학동네, 1998.

년들은 ‘하면 된다’라는 진취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면 한다’라는 리스크 관리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느낀다. 될 것 같은 확실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움직인다. 그래야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 그리고 숙명과 우연에 모든 것을 걸고, 퇴로를 끊어버리며, 마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기라도 할 듯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적 삶의 영웅적이고 진취적 태도는 가장 미려한 짓이라고 여긴다.⁷⁾

이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지만 막강한 숙명의 힘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비극 속의 주인공의 처지와 비슷하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의 감각은 자신들이 저지른 도덕적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하고,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나 나쁜 놈 취급당하며, 단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세계를 조직하는 다양한 폭력들의 막강함에 의해 할렘을 당한다고 여긴다.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하여 마치 자연법칙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말하자면 청년들에게 이 세계 안에서의 삶이란 비극의 경우처럼 막강한 숙명의 힘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비극 주인공의 삶이다.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소한 비도덕적 실책(하마르티아)에 의해 숙명에 패배하는 영웅의 비장미 어린 운명 속에서 공포와 연민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겸손(휘브리스의 경계)과 중용의 도덕을 배우거나 유한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적 삶의 집합적 지혜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폴리스라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삶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이 굳건하기에 가능했다. 페리클레스가 연속된 전란으로 황폐화된 아테네의 공동체 의식과 민주정을 복원하기 위해 디오니소스제의 마지막 날 비극을 상연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라는 집합적 흥분의 도취를 경험토록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비극은 모두가 유한하기에

7) 게오르그 짐멜, 앞의 책.

언제든 숙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결국 이 부조리와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되고 내 옆의 동료들끼리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줬다. 그렇기에 비극이 위대한 장르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숙명에 할퀴를 당하며 패배하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해진 비극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라고 느끼지만, 이들의 삶의 세계는 개별화되어 파편화된 세계이다. 말하자면 집합적이고 공적인 노력으로 같이 대안적 삶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그러니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극이 고통스러운 삶을 더 의미있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의 비극적인 삶의 무대에서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탄핵당하고 있다는 고통의 감각과 세계에 대한 분노의 감각만 남는다. 개별화되어 파편화된 청년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체는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부정의한 것으로 체험된다. 개인의 힘과 숙명적 세계의 힘 사이의 싸움!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있다. 개인은 제도적 물질성을 가지고 폭력처럼 작동하는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의 힘과 싸워 이길 재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는 확실히 개인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개인이 이처럼 무기력화된 시대, 개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시대를 개인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 없다. 개인주의의 시대가 아니라 개별화의 시대일 뿐이다.

2.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이 찾은 돌파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은 불의한 세계가 가하는 숙명 같은 막강한 힘에 의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삶을 체험하게 될 때, 남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숙명의 불의에 순종하고 적응하기

이 세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이 세계가 자신들에게 가하는 힘에 맞서 이길 수 없다면 세상을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김수영은 동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끌려가고 고문받는 속에서 비겁하게 “옆으로 비켜서” 기껏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고 묻는다. 아무리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대적해야 할 힘이 너무 거대하면 그 힘에 대한 분노도 대적할 마음도 안 생기는 법이다.⁸⁾ 어차피 안 바뀔 세상을 탓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 분노는 자신에게로 향해 자책의 형태로 바뀐다.

저희는 실패가 일상이거든요. 세상 탓하고 싶은데, 지금 같아서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제 탓 하게 될 것 같아요⁹⁾

세상이 미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사실 다 돈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제 전공도 그렇고, 좋아하는 공부나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졸업반 되니까 ‘여태껏 뭐했는지 모르겠다. 뭐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해놓은 게 없다.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그런 저 자신이 미워요.¹⁰⁾

위 인용은 내가 인터뷰했던 청년들의 진술이다. 두 청년의 구술은 ‘세상 탓’과 ‘세상이 미워요’로 시작해서 ‘제 탓’과 ‘저 자신이 미워요’로 마무리된다.

어차피 안 바뀔 세상이라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이라면 자기가 바뀌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내가 이 세계가

8)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창작과비평사, 1999.

9) 청년1: 김주환, 2020c 347쪽에서 재인용.

10) 청년2: 김주환, 앞의 논문 같은 쪽에서 재인용.

가하는 숙명의 힘에 철저히 순응하여 그것에 적응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이 세계에 대한 규범적 비판은 소음이 되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는 바보 같은 행위가 된다. 이 세계가 숙명처럼 가하는 힘이 설령 부정의할지라도 그것은 비판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느낀다. 그것은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그러한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할 유사 자연법칙이다. 이러한 삶과 세계 감각 속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비극을 통해 깨달은 휘브리스 경계의 지혜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순응과 복종 속에서의 적응이라는 비겁한 삶의 윤리로 바뀐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는 주어진 환경을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는 동물들의 물화된 삶의 태도이고 빈곤한 세계 인식이다.

2. 소확행, 협소한 내적 개별 영역으로의 도피

하지만 순응하고 복종하며 세계에 적응하는 것도 피말리는 피곤한 일이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연법칙은 경쟁과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들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힘이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영역을 찾아 은신한다. 인생의 커다란 목표 같은 것은 이미 내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어있으니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 순간 순간의 긴장을 찾아 기쁨을 누리거나, 타인과 엮이는 것을 최소화하여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며, 혼자 영화를 보는 개별화된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찾는다. 이 협소하고 소소한 영역들만이 나의 힘이 작동할 수 있는 관할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화된 협소한 삶의 영역에서 행복을 찾는 이러한 유형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개인들이 무기력화되는 시대 풍조가 발생할 때마다 생겨났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민주정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공화정의 틀이 흔들리며 황제정으로 들어가고, 제국 경제 하에서 중산층이 몰락해가면서 돈의 논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감각이 강해지던 기원전 1~2세기

의 고대 로마시대부터 오로지 개인성의 영역으로 침잠하는 온갖 철학과 사상 사조들이 나타났다. 이런 조건에서 에피쿠로스학과, 견유학과, 스토아학과 등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은 개인의 내면이나 유사 종교공동체의 협소한 학파(학술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¹¹⁾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외적으로 강제되는 힘을 고려하면서도 그것을 적절히 해쳐나갈 수 있는 탁월함의 덕 활동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봤고, 그러한 능동적 인간 활동의 본령은 공적인 정치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나 우리가 관여하여 세상을 만들어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축소된 채, 어차피 세상을 작동시키는 힘은 중앙집중화된 권력으로서 황제의 자의성이거나 돈과 같은 비인격적 원리 같은 외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관하여만 숙고하기 마련이라고 했다.¹²⁾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매우 많은 부분들이 숙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숙고하여 행동한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집합적이고 공적인 정치적 숙고와 활동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서 나올 수 없다. 행복의 자리는 공적 정치 바깥의 개인적 삶의 영역이나 국지적 공동체의 삶 안으로 축소된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숙고해볼만한 관심사는 어떻게 소소한 행복의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타인과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정치나 경제 구조의 공적 개입과 개혁 등에 청년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나 연대의 실천 등은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청년

11)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상권)』,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99, 312쪽; 추정완,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윤리과교육』 58, 2018, 3~4쪽.

12) Aristotle,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Hippocrates George Apostle trans. Peripatetic Press, 1984, pp. 88-90.

들을 비난하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치는 관심을 가져보아야 개입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는 효능감의 영역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 주관적 고통의 절대화: 신적 폭력의 파괴적 정념

순응하여 복종하는 것도 피곤하고, 소확행 같은 것을 하며 협소한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은거해 잠시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삶의 고통과 분노는 해소되지 않고 쌓인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계에 의분을 표출하는 것이다. 삶의 고통이 부정의한 세계의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부정의한 세계에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이다. 하지만 이성이나 말과 달리 감정은 액체 같은 것이어서 유동하며 흐르고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최고의 사랑이 최악의 증오로 바뀌는 것이 순식간이듯, 의분이 혐오의 파괴적 정념으로 바뀌는 것 역시 순식간이다.

부정의한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 같은 막강한 힘에 의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패배하고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이 세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은 무기력하다. 이 세상이 가하는 숙명의 힘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벤야민과 벤야민에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많은 서구의 정치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적 폭력’의 힘이 필요하다.¹³⁾ 청년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고통의 주관적 정념에 최고 권위를 부여한다. 합리적 논리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적 정당성, 규범적 정당성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긴다.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고통이야말로 이 세계의 부당성을 증명해주는 가

13) 신적 폭력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서관모, 「적대들과 차이들」, 『마르크스주의 연구』 12(3), 2015, 12~44쪽; 진태원, 「좌파 메시아주의라는 이름의 욕망」, 『황해문화』 82, 2014, 172~196쪽.

장 강력한 증거이다. 주관적 고통의 감정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성이나 규범적 정당성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권위이다. 청년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이 세계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있다고 여기기에 이 세계는 그 자체로 부당하며, 부당한 세계에 의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자신들의 저항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여긴다.

이런 식의 신적 폭력의 도덕정치, 정념의 현전 정치가 청년들의 젠더 투쟁과 기성세대에 대한 혐오의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각자의 주관적 고통을 절대화하여 신적 권위를 부여한 후 다른 집단에 대해 혐오의 공격성을 표출할 때 자신들이 부당한 폭력에 대해 맞서는 영웅적 실천을 하고 있다고 느끼며 참으로 존재론적으로 의미있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신들이 가하는 혐오의 폭력은 결코 혐오나 폭력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III. 칸트 배후의 사드: 고전 교육 배후의 폭력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고전이 담고 있는 풍부한 지혜, 삶과 인간에 대한 통찰, 비판적 자아성찰과 사회인식, 인격 도야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다. 물론 그래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의 처지에서 이러한 주제들이야말로 폭력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른바 인문학 정신, 고전 교육의 중요성,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 다른 식으로 생각하기의 힘, 미학적 상상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등 모두 훌륭한 것들이고 옳은 말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옳은 것들일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훌륭하고 옳은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의도치 않게 당사자들에게

는 폭력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다. 옳은 것을 실행하여 현실화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당사자들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조건에서 옳은 것을 현실화하려면 당사자 외부에서 강제력이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이미 배워서 그런 것들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행동에 옮길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당장 스펙 쌓아 취직해서 생존해야 하는 일로 골몰하고 있어서 그러한 옳은 것들이 급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않으며, 더구나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길 사회적, 제도적 조건도 충분치 않은 상황인데, 고전이 담고 있는 지혜를 느껴보라고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보라고 하며, 창의적인 상상력,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해보라고 한다. 이렇게 될 때 고전 교육, 광의의 의미에서 인문학 교육은 학생 당사자들의 삶의 세계와의 연관이 끊어진 채,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물화된 가르침으로 체험된다. 그러니 그 옳은 가르침들이 폭력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폭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학생들은 귀를 닫는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말하는 인문학 정신과 교양의 가르침은 소음이 된다. 교육자의 가르침은 냉소의 대상이 된다.

청년들에게 사회를 비판하며 다른 삶의 방식을 찾자는 논지의 글들¹⁴⁾을 읽힌 후 학생들이 과제로 써서 제출했던 글의 일부를 잠시 살펴보자. 서울 소재의 한 대학에서 나의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글이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나를 비롯한 청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리저리 재단하고 이전 세대와 비교하고 평가하여 멋대로 단정짓는 일련의 과정들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 당장 생존경쟁에 내몰린 청년 세대에게 해결책을 제시 해주지도 않는다.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기분이 들어서 역시 썩 유쾌하지 않다.

14) 수업에서 읽힌 글은 김홍중의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와 최종렬의 「'북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52(1), 2017이었다. 학생들은 두 글을 읽고 과제로 비판적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누구는 당장 먹고 살 걱정에 골몰하는데, 어떤 이는 먹고 살 걱정에 골몰 중인 이들을 분석한다니 너무나 이질적이게 느껴지지 않는가. [...] 저자는 청년들이 속절없이 생존주의에 함몰되어 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지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다 고도의, 이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쳐있는 사람에게 더 무얼 해보라고 부추기는 것만큼 못된 것이 또 있을까. 싸워서 이겨내든, 무너져 내리든 혹은 제3의 방법을 찾든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망하며,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는 이런 태도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15)

두 사람(수업 읽기자료로 쓰인 글의 두 저자) 모두 SKY 나와서 유학도 하고 교수까지 된 사람들이고, 인생에서 실패는 안해 봤을 사람들인데, 실패가 일상인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 학벌주의의 수혜자인 교수가 학벌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얻는다.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 절대 지방대생들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마치 공감하는 ‘척’ 하는 것이고, 단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진다. [...] 그러니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위로가 되는 것이다.16)

청년들을 위해,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며 더욱 의미있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글을 쓴 저자들이 냉소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당장의 구체적인 효용도 주지 못하면서 청년들에게 비판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요구는 편안한 ‘교수’의 위치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관망하며” 그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일로 체험된다. 또한 교수가 청년들을 위해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정작 “학벌주의의 수혜자인 교수”가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단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냉소된다.

고전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자 하

15) 청년3; 김주환, 2020a 56쪽에서 재인용.

16) 청년4; 김주환, 위의 논문 같은 쪽에서 재인용.

는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 이리하다.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면 옳은 말이 청년 당사자에게 폭력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맥락을 따져봐야 하는가?

IV. 고전 교육의 목표는 힘의 강화이다

고전 교육은 결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제시해주거나 이리저리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한 후 안전한 교수라는 자리로 후퇴하는데 멈춰서는 안된다. 사실 많은 교육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도의 교육에서 멈춘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많은 교육자들은 ‘우리는 답을 줄 수 없고 학생들에게 다르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해주는데 만족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소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정당화한다. 그리고 안락한 교수의 자리로 후퇴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보호해줄 옷도 없이 생존해야 하는 가혹한 세계의 숙명 질서를 살아가는 ‘벌거벗은 생명’의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 청년들이 교육자들을 ‘성안’에서 자신들과 같은 ‘성 밖 사람들’을 “안쓰러운 얼굴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처지를 관망하듯이 바라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것이다.¹⁷⁾ 왜 교육자는 불온해서는 안되고, 스스로를 안전한 제도적 공간 안으로 한계지어야 하는가?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고전 교육의 목표는 당사자들이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고전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위한 싸움의 실용적 무기이자 싸움의 기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무기는 단지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 삶의 위기는 단순히 인지적 수준에서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실천적 수준에서

17) 청년 3; 김주환, 앞의 논문 58쪽에서 재인용.

살에 느껴지는 폭력과 고통의 상황이다. 즉 문제 상황으로서 삶의 위기는 자유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존재론적 힘과 특정한 방식으로 살 것을 강요하는 외부 세계의 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힘과 힘의 전투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곤경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듯 “비판의 무기가 흥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는 법이기에, “물질적 힘은 또 다른 물질적 힘에 의해 격파되어야 한다.”¹⁸⁾

고전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처한 고통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발견할 수 있는 무기고이고 연장통이다. 고전 교육은 마땅히 학생들이 그러한 무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기업, 대중매체는 바로 고전이 그러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아챘고 그 잠재력을 통치의 논리, 경영과 리더십의 논리, 처세의 논리로 작동하도록 배치해 포획했다. 문제는 이 배치를 뒤흔들어 국가, 기업, 대중매체 등에 의해 빼앗긴 잠재력을 청년 당사자들이 자유를 위한 싸움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럴 때 고전 교육은 사드의 학문이기를 멈추고 존재론적 힘이 강화되는 유용성에 의해 확보되는 감정으로서 니체가 말하는 ‘즐거움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는 청년들에게는 ‘즐거움’은 커녕 폭력으로 체험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고전 교육을 지속하거나, 국가나 기업,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영혼 없는 고전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 어느 쪽이든 교육자들이 생각한 고전 교육의 방향은 아니게 될 것이다.

V.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경우

지금까지 자유를 향한 싸움의 실용적 무기로서 고전 교육, 결국 같은 말

18) 칼 마르크스, 『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역, 아침, 1988.

이지만 '즐거운 학문'으로서 고전 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했다. 이 장에서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하나의 사례로 하여 고전 교육이 초점을 두어야 할 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활용술이 초점이지만, 텍스트의 내적 분석이 초점은 아니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으로 뽑힌다. 보통 이 책은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책으로 읽힌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교 및 대조하는 방식으로 읽히기도 한다. 사실 이 책을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책으로 읽고자 한다면, 이 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너무 많다. 가령 과연 서구에서 근대자본주의가 칼뱅파가 많았던 지역들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들이 있다. 평생 낭비하지 않고 축적만 하는데 어떻게 자본의 증식, 확장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베버가 해석하는 각종 종파들의 교리 해석 역시 몰이해의 혐의가 뒤따른다. '왜 비서구가 아닌 서구에서 먼저 근대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했느냐'라는 베버의 질문방식 자체가 가진 서구중심주의 역시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많은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베버가 전개한 기발한 발상이나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문제의식은 그 책을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있게 만드는 생명력의 원천이다. 많은 미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 따라 베버가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힘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근대적 삶의 위기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고찰했는지에 집중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베버는 근대적 합리화의 특징을 어쩌서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인간 행동의 실천 영역에서 파악하려고 했는가? 베버는 행동을 추동할 힘의 문제에 주목하는데 힘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근대사회에서 이 힘들의 배치는 어떤 모습으로 배치되며 이로인해 인간 삶은 어떤 형상으로 조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가? 근대적 삶의

특징으로서 의미상실과 자유상실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베버가 힘의 문제와 관련하여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러한 베버의 일련의 질문들이 오늘날 청년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 삶의 고통을 해결해나가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1. 힘으로서 합리화: 왜 인지적 합리화가 아니라 실천적 삶의 합리화에 주목했나

베버의 대표적인 용어들 중 하나가 ‘합리성’이다. 근대로의 사회변동은 합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베버는 합리성을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등장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근대의 합리화 과정을 인지적 수준을 넘어 인간 삶의 구체적인 실천 영역 수준에서 추적한다. 사실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말을 듣고 즉각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체계화나 생산 기술 등의 발전 역사이다. 과학과 달리 종교는 비합리성이나 전근대성의 대표적인 주제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베버는 그와 같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합리화를 통해 근대의 합리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종교’ 현상을 통해 근대 합리성의 출현을 읽어낸다. 즉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개신교 교리의 체계화 과정에서 합리성의 뿌리를 찾는다.

그렇다면 왜 과학적 사고방식의 합리화과 아니라 종교 교리의 체계화 과정에서 근대적 합리성의 뿌리를 찾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버가 인간 삶의 인지적 수준이 아니라 인간 삶의 실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리화를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령 $1+1=2$ 라거나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하는 수학/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것은 아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과학적 명제를 두고, 우리는 ‘그래서 뭐 어찌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령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이미 신이 결정해놨다’라는 교리가 다양한 논변을 통해 체계화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뭐 어찌란 말인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나 바깥의 세계가 작동하는 객관적 법칙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 행위방식, 사고방식, 운명 등을 좌우하는 실존적 문제인 동시에 규범적 삶의 지침으로 곧장 나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에 인간들의 삶과 행위의 방식이 합리화되었다면 그 뿌리는 실천적 규범의 영역으로서 종교가 가하는 힘의 압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다른 것보다 베버가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삶과 행위의 근대적 합리화를 포착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근대 이후 인간의 삶과 행위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다면, 예를 들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면 그것을 조직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베버의 문제의식 배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볼 때 ‘평생’ 철의 금욕적 노동윤리로 무장한 채 살아가는 근대적 인간 주체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은 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는 금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가령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비를 최소화하여 돈을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나 낭비가 주는 쾌락을 평생 포기할 수 있으려면 엄청나게 강한 힘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그 힘의 압박은 알다시피 ‘죽어서 천국갈래 지옥갈래?’의 형태로 가해지는 종교적 구원의 협박이다.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간을 천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내세에서의 삶에 비하면 잠시에 불과한 현세에서의 삶(하지만 그것은 한 인간의 평생이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베버는 우리의 삶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반복가능하게 조직될 수 있으려면(즉 행위의 근대적 합리화가 가능하려면), 그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점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범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실천적 행위 영역에서 작동하는 합리성

이란 모종의 힘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정신, 근대 자본주의적 주체들을 낳은 것은 종교가 지닌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최소한 근대 초까지만 해도 서구에서 종교의 힘은 자본주의의 힘보다 강했고 따라서 자본주의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적 규범에 의해 통제되던 이 시기의 자본주의를 베버는 합리적 자본주의 또는 도덕적 자본주의라고 표현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청년들을 돌아보자. 청년들은 고통스럽지만 끊임없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바쁜 삶을 살아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끔찍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삶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김홍중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생존주의’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어떤 힘이 생존주의적 삶을 반복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일까?¹⁹⁾ 종교가 죽어서 ‘천국갈래, 지옥갈래?’라는 협박의 힘으로 초기 근대인들을 압박했듯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시장은 ‘죽을래, 살래?’라는 다른 형태의 협박을 가한다. 두 형태 모두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결코 지옥을 택할 수 없고, 죽음을 택할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존주의의 삶 이외에는. 만약 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래, 살래?’의 협박을 이겨낼만한 더욱 강한 힘의 압박이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죽음의 협박의 힘에 필적할만한 다른 힘의 압박을 찾기는 쉽지 않다.

2. 힘의 역전: 자기목적화된 자본주의 작동 논리와 관료제적 행정 권력의 논리 그리고 최후의 인간

그런데 문제는 근대적 합리화 과정에서 종교의 힘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이다. 니체의 표현을 빌면 근대는 ‘신이 죽은 시대’인 것이다. 신이 퇴거하면서 그 동안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있던 종교가 지녔던 힘이

19)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179~212쪽.

약화된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는 자신을 낳은 모태였던 종교적 힘의 통제에서 벗어나 두 발로 서게 되며 급기야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종교적 힘으로부터 자립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돈을 버는 이유가 종교적 구원을 위해서라는 규범적 이유가 아니라 단지 벌기 위해서가 되는 상황으로서, 말하자면 벌기 위해서 버는, 벌기의 자기목적화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이제 수행과 그 수행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버린 자기작동하는 기계 메커니즘으로 바뀐다. 베버는 이러한 상태에 돌입한 자본주의를 초기 근대의 자본주의와 대비하여 ‘천민자본주의’라고 칭한다. 종교의 도덕규범적 통제력에서 벗어난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이다. 하지만 천민자본주의는 나름의 형식 논리를 따라 일관되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것이기에 여전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정치 영역에서도 벌어진다. 수평적 우애에 바탕해 이루어지던 공적 자기 결정 영역으로서 근대 민주주의는 관료제의 정치 기계로 바뀐다. 근대의 민주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관료제라는 도구적 형태로 제도화해냈는데 이 도구로서의 관료제 제도에 응축되어 있는 합리성(형식합리성, 도구합리성)이 구체적인 인간들의 정치적 구성이라는 민주주의 맥락으로부터 자립화되어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 메커니즘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인간들의 공적 자기결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관료제는 여전히 나름의 형식 논리를 따라 일관되게 반복하여 작동하는 이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베버는 이와 같은 근대의 역설을 집어낸다. 경제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그것의 합리성을 낳은 것은 종교적 힘이나 민주주의의 힘이었고 초기에는 그것들의 통제력 하에 있었으나 점차 힘 관계의 역전이 발생하면서 경제나 정치 영역에서의 합리성이 자동적 자기작동 메커니즘이 되어 그 발생 모태로부터 자립해버리는 상황이 바로 근대의 특징임을 베버는 지적한다. 이것이 경제와 정치라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합리화가 낳은 자유상실의 역설이며 삶이 익명적 사물 논리에 의해 주조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상실의 역설이다. 여기서 나는 베버가 문제를 힘 관계의 경합이나 길항의 구도에서 자유상실과 의미상실의 문제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장의 작동 논리나 관료제의 작동 논리의 힘이 커지고 그것이 우리의 현대적 삶의 양상을 주조하고 강제함으로써 외적인 경제와 관료제의 힘에 의해 떠밀리듯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처지는 힘들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교나 민주주의를 모태로 하여 출현했으나 근대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점차 자립화하여 그것들의 통제력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화된 기계 메커니즘으로서 오늘날의 경제와 관료제는 단지 자립화되는 것을 넘어 그 모태들로 파고들어 식민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직하고 있다. 도덕규범의 영역마저도 경제논리를 따라야 하고, 민주주의도 관료제 기계의 비인격적 기계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다시 경제와 관료제 기계를 통제할 힘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베버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 답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베버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비관주의에 빠진다. 베버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와 관료제의 자기작동논리를 통제할 힘은 없다는 비관 속에서 앞으로의 인류의 운명을 우울하게 예견한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될 최후의 인간은 두 부류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예견한다. 그 한 유형은 ‘영혼없는 전문가’, 다른 유형은 ‘가슴 없는 향락가’이다. 베버의 비관주의는 우리 시대의 우울한 풍경을 매우 정확하게 예상했다. 특히 고전 교육의 당사자인 청년 대학생들의 처지가 정확히 이러하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세계의 숙명적 힘에 떠밀려 그 힘의 작동 논리를 정확히 포착하는 전문가가 되어 생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이 세계가 가하는 숙명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에 그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규범적 가치 판단을 할 생각을 못한 채 영혼 없는 전문가처럼 세상을 살아간다. 이들은 살기 위해 산다. 자유나 의미는 뒤로 밀어둔 채 생존하기 위해 생존한다. 생존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존의 자기 목적화가 바로 이들의 삶의 형태다.

다른 한편 이러한 삶이 고통스럽기에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삶의 중요 영역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 단편적이며 무의미한 쾌락 자체를 추구하는 가슴없는 향락가로서 살아간다. 가슴없는 향락가들은 실존의 힘이 강화되는 존재론적 의미로 충만한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잊고 순간의 즐거움에 탐닉하기 위해 즐거움을 추구한다. 즐거움 자체가 자기 목적화된다. 가령 디오니소스적 열정 속에서 존재의 변환과 개별성을 넘어선 거대 공동체의 구성을 통한 힘의 강화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위해 마신다.

3. 베버가 비판에 빠져 절망한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다.

자유와 의미를 추구하는 실존적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가하는 힘은 강력하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영혼 없는 전문가와 가슴없는 향락가의 삶이 강제되고 있다. 이 비참한 삶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까? 다시 베버의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베버는 비인격적 사물의 논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경제의 시장 논리와 정치의 관료제 논리가 인간들이 집합적, 인위적으로 구성한 모종의 사회적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이와 같은 비참이 발생하는 맥락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그 익명적 사물들의 논리가 지닌 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베버의 질문이었다. 그것들의 힘을 통제할 유일한 힘인 종교의 힘을 대체해 그 역할을 해 줄 대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베버는 스스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비관주의로 빠졌다.

베버는 찾지 못해서 중도에서 멈췄지만,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사유를 전개할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이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급히 답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처한 힘의 배치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힘의 배치는 내가 숙명적 비극의 구조라고 말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부의 숙명이 가하는 막강한

힘에 비해 개별화된 청년들이 그 힘에 맞설 힘은 매우 축소되어 있다. 맞서 기는커녕 자신을 보호할 옷도 벗겨진 채 ‘벌거벗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찾은 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생존의 동물적 힘이다. 그 실천 양상은 순응이다. 이 세상 작동의 게임 규칙에 대해 도덕적 가치 평가를 내리고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사실적 사태로 간주하고 그 게임 규칙에 대한 가장 충실한 수행자가 되는 삶의 길이다. 누가 더 이 세상의 게임 규칙을 더 잘 포착하고 잘 익혀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골몰하는 삶으로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과 삶의 기술들을 통해 자신의 생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다. 여기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 또는 1등부터 꼴등까지 분명한 위계가 설정되며 이 위계에 따른 보상도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이는 주어진 생존의 게임 규칙에 따른 삶의 결과이므로 그 자체로 공정한 것으로 여긴다. 문제는 이러한 생존 게임에서 대부분은 패배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차별이 공정한 것으로 둔갑한다는 점이다. 이는 동물의 세계의 생존 규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삶에서는 의미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존했다는 사실적 사태가 삶의 의미이고 자유상태라고 착각되는 동물과 노예의 비참한 삶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둘째는 사물화된 익명적 경제적 시장의 논리와 정치의 권력 논리가 지닌 힘보다 자신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사적 생활의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 머물러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안이다. 이른바 ‘소확행’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나 개인 내면의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활로를 찾는 방안이다. 이때 그들이 작동시키는 힘은 주관적 내면의 개인적 취향 추구의 힘이다. 이는 사물화된 시장 논리와 정치 논리에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면서 그것이 침범하기 힘든 자신만의 자유의 공간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그 자유의 영역은 개인의 주관적 내면이나 일상의 소소한 영역들로 한정된 협소한 영역이다. 더구나 소비자본주의 시대, 미시권력의 시대에 그러한 영역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로운 영역은 아니다. 또한 그러

한 시도들에서는 개별화된 개인들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대나 협력의 실천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전히 개별화의 논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물화의 힘을 압도할 역량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신적 폭력의 힘에 대한 상상력이다. 이는 내재의 세계를 조직하는 사물의 힘 너머의 초월적 힘을 통해 내재의 세계를 깨뜨리겠다는 혁명적 파국의 급진주의적 태도이다. 여기서는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신을 둘러싼 일체의 세계를 부당한 가해자로 설정하고 자신들을 그 가해자들에게 부당하게 희생되는 집단으로 사고한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자신들을 부정의한 악의 세계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선한 자에 위치시킨다. 전형적인 선과 악의 도덕정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신적 폭력에 대한 상상력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싸움의 무기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것은 폭력적 혁명의 태도이다. 하지만 아무 때나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적절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없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오히려 역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문제는 사태를 선과 악의 구도로 보게 되면 이 세계에서 억압과 고통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들어설 틈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의분의 감정이 체계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대체해버린다. 그러나 신적 폭력의 상상력이 지닌 힘을 적절히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자유민주주의의 게임 룰을 파괴한다. 그렇기에 이 방안도 자유와 의미를 위한 싸움의 적절한 정치적 기술이 될 수 없다.

베버는 해법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베버를 너머 해법을 사회적 지평 내에서 찾아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이 취하는 위 세 개의 반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방안이 차가운 현실주의적 해법이라면, 세 번째는 뜨거운 근본주의적 혁명적 해법이다. 두 번째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현실 도피적인 소박한 해법이다. 전혀 다른 유형의 해법들 같지만 이 세 방안은 개별화의 원리를 공통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첫 번째 방안은 개별자들의 경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두 번째 방안 역시 개별자들의 주관적 내면과 취미 영역에 머문다. 세 번째 역시 오로지 개인이나 유사한 처지에 있는 집단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고통과 분노의 주관적 정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화의 원리를 따른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 방안들이 사물화된 사회에 저항하는 방안이기는커녕 개별화의 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장과 권력의 작동을 통한 사회조직화의 거울 반영임을 눈치챌 수 있다. 즉 이들 역시 사물화된 사회의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개별화를 넘어서는 상상력에서 나와야 한다. 차이를 지닌 존재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경쟁하는 수평적 연대와 경쟁의 아고니즘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조정 및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상품이나 화폐, 권력 논리 등과 같은 사물의 논리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사회 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이 위치해야 할 지평이다. 이 세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게임 규칙에 의해 우리의 사회적 삶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때 집합적 수준에서 민주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힘에 의해 구성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사회를 조직하는 비인격적인 사물의 논리가 지닌 힘에 맞서 힘의 싸움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고민이 정교화되어야 할 지점은 바로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싸움 기술의 마련이다. 고전 교육은 이와 같은 싸움의 실용적 기술을 고안하기 위한 상상력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VI. 결 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외적인 힘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삶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부당한 폭력으로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전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고전 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 고전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전에서 배우는 것은 당장의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이다. 고전이 당대의 문제를 어떤 질문을 통해 어떻게 포착했고, 문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질문을 제기했는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상상력의 지평을 열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시대를 관통하며 그 생명력을 증명해왔던 글들을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생명력은 바로 질문하기의 힘이 지닌 상상력이다. 질문을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처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하고 유용한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전은 바로 그 유용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며 찾아가는 지적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장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 외적인 힘들에 맞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고전의 상상력이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응해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싸움의 기술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날 별다른 싸움의 무기는 커녕 자신을 보호해줄 옷도 없이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라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거나, 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라거나 하는 교훈에 만족하는 고전 교육은 의도하지 않게 한가한 이야기가 되고, 소음이 되며, 폭력이 될 수 있다. 벌거벗은 생명에게는 우선 옷이 필요하다. 의미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도 생존할 수 있도록 옷부터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옷을 자꾸 벗기려는 시장 경쟁의 힘과 국가의 힘에 맞서 더욱 튼튼한 옷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 두 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찾고 그 힘을 활용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해 능수능란하게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적 사고 능력을 고전 교육이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서 인용했듯이 마르크스는 비판은 해부용 칼이 아니라 무기라고 했고, 물질적 힘은 물질적 힘에

의해 격파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온갖 물질적 힘에 의해 치이고 할렘당하며 ‘죽을래 살래?’의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결코 책 속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이다. 그렇다면 고전은 그 현실의 실재적 고통을 야기하는 힘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고전 교육은 그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고전 교육이 문화적 교양층으로서 이른바 지식인과 교수들의 자기 만족에 머물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폭력으로 작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벗어나려면 고전 교육자는 마키아벨리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 당대의 조건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무장한 예언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우리의 조건에서 고전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무장한 예언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²⁰⁾ 우리 고전 교육자들은 혹시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칸트처럼 사드의 폭력을 배후로 옳음이나 좋음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전 교육의 당사자는 대학생 청년이기 이전에 교육자 자신이 되어야 한다.

20) 마키아벨리, 황문수 역, 『군주론/정략론』, 동서문화사, 2016.

참고문헌

-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창작과비평사, 1999.
- 김주환,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절대적 고통 감정과 희생자-신 되기의 탈정치」, 『사회와 이론』 36, 2020a, 49~92쪽.
- 김주환, 「숙명적 비극의 시대, 청년들의 모험의 운명」, 『사회이론』 57, 2020b, 151~192쪽.
- 김주환, 「의미상실과 자유상실의 시대, 청년들의 시간감각과 세계감각 속에서 가치의 전도」, 『문화와 사회』 28(3), 2020c, 315~363쪽.
-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179~212쪽.
- 서관모, 「적대들과 차이들」, 『마르크스주의 연구』 12(3), 2015, 12~44쪽.
- 진태원, 「좌파 메시아주의라는 이름의 욕망」, 『황해문화』 82, 2014, 172~196쪽.
- 최종렬,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52(1), 2017, 243~293쪽.
- 추정완, 「에프쿠로스의 죽음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윤리과교육』 58, 2018, 1~26쪽.
-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역, 새물결, 2005.
- 라인하르트 코젤레, 『지나간 미래』, 한철 역, 문학동네, 1998.
- 마키아벨리, 『군주론/정략론』, 황문수 역, 동서문화사, 2016.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덕영 역, 길, 2010.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학문』, 전성우 역, 나남, 2017.
- 미셸 푸코, 『자유를 향한 참을 수 없는 열망』, 정일준 역, 새물결, 1999, 123~162쪽.
- 요한네스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상권)』,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1999.
- 칼 마르크스, 『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역, 아침, 1988.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메시나에서의 전원시 유고』, 안성찬, 홍사현 역, 책세상, 2005.

Koselleck, Reinhart. *Critique and Crisis: Enlightenment and the Pathogenesis of Modern Society* Cambridge, MIT Press, 1988.

Abstract

The Use of a Classic as a Pragmatic Martial
Technique for Liberty, in the Era of Fatal Tragedy
- In the Case of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by Marx Weber

Kim, Juhwan(Dong-A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how education of classics should be done today, when the young experience difficulties and pain in their lives more than ever. Today the young feel that they are determined unilaterally by the outer forces that they do not determined. They experience the sense of the loss of freedom and meaning in a lethargy. In this situation, they may experience the education of classics as a forced claim to live righteously that they cannot practice because they don't have any practical powers and resources to conduct the righteousness. The education of classics can be unintentionally simply a noise for them. Thus, I suggest that the education of classics should be a useful techniques to solve problems making them painful. Particularly, it needs to be practical for them to analyze the disposition of forces in which they experience pain, and to rearrange the disposition of forces. This paper shows, as an example, how Max Weber's famous work, *Protestant Ethics and the Spriti of Capitalism*, can be taught for the young to find practical techniques to solve problems making them painful.

[Key Words] classics, youngster, technique, university, usefulness, Weber

접 수 일 : 2021년 08월 23일
심사완료 : 2021년 09월 05일
게재결정 : 2021년 09월 16일

